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2013. 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2013. 1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허문영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전반적 특징	1
II. 2012년도 평가	6
1. 경제	6
2. 정치	6
3. 군사	7
4. 사회·문화	7
5. 대남	8
6. 대외	10
III. 2013년도 과업	11
1. 경제	11
2. 정치	13
3. 군사	14
4. 사회·문화	14
5. 대남	15
6. 대외	16

IV. 2013년도 부문별 전망	18
1. 경제	18
2. 정치	18
3. 군사	19
4. 사회·문화	20
5. 대남	20
6. 대외	22
V. 정책적 함의	24
부록. 2013년 북한 신년사 원문	27

I. 전반적 특징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1월 1일 오전 방송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 북한 최고지도자의 육성 신년사 발표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던 해인 1994년 이후 19년 만의 일
 - 이는 권력승계 이후 김일성을 모방하며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 한 ‘김정은식 통치행태’의 일환

- 올해 신년사는 새해 인사에 이어 지난해의 업적을 짧게 평가하고 올해의 과제를 길게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됨.
 - 2012년을 김일성·김정일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해”로 규정하고, 지난해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역사적 승리를 이룩했다고 평가
 - 2012년의 구체적인 성과로 다음을 제시: ① 과학기술 발전, ② 현대적 군사장비 보유, ③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 생활향상 진전, ④ 인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⑤ 사회주의 교육제도 강화

- 신년사는 2013년을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 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강조함.

-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을 위해 2013년에 달성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다음 순서대로 제시: ① 경제, ② 정치, ③ 군사, ④ 사회·문화, ⑤ 대남, ⑥ 대외
- <경제 분야>: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강화, ‘인민경제계획’의 엄수,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 등과 같은 보수적 색채의 용어 사용이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정책의 보수적인 기초를 강하게 드러냄.
 -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과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 다음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생산력 증대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인민생활 향상에 비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
 -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가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함과 동시에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역설함으로써,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입각한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올해의 투쟁구호를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로 설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을 2013년 대내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정치 분야>: 김정일의 육성 연설은 ‘인민 친화적’이었던 김일성을 모방하면서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올해 신년사는 예년에 비해 분량이 짧아진 것도 특징
 - 예년에 비해 과장되고 거창한 문장형식은 완화되었지만, 목표

제시의 추상성이 높아져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진 측면이 존재

- 신년사는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내결속을 위한 정치사상적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

○ <군사 분야>: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중시하던 분위기는 약화되었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빈도를 높임으로써 당이 전면에서 김정은체제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임.

- 허황된 구호에 초점을 맞추어 온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좀더 실용적인 논조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
- 금년이 김일성이 ‘일당백’ 구호를 제시한 지 50돌이 되는 해라면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국방공업부문에서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사회·문화 분야>: 작년에 이어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로 문화후생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과제를 제시함.

-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강조

- 예년에 강조되었던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경계’ 관련 과제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특징
- <대남 분야>: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함.
 - 이는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 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정부 투쟁선동과는 다른 방향
 - 2010년과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각각 “북남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거나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나타난 유화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
 -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
- <대외 분야>: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평화, 친선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고 있음.
 - 당분간 동아시아 정세흐름을 관망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이념으로 포장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
 -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2012), 한반도 비핵화(2011), 조·미 적대관계 종식(2010), 한반도 평화체제(2010) 등과 같은 주장이 없고,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했던 중·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

- 이는 작년엔 정부가 교체된 동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새로이 수립하게 될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대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II. 2012년도 평가

1. 경제

- 지난해 정치적 어려움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고 강조함.
- 가장 대표적인 실적으로 제시한 사업은 희천발전소와 단천항의 완공임.
 - 이외에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훌륭히 개건”되었다고 역설
- 또한 평양시 고층아파트와 각종 유원지가 건설된 점도 강조되었음.
 - “평양시에 창전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졌다고 주장

2. 정치

- 2012년의 정치 분야 성과의 핵심은 세 가지임.
 - 김일성 탄생 100돌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한 것
 -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한 것
 - 북한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승리를 이룩’했다는 것

-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 중에서 특별히 내세워진 것은 두 가지임.
 - 첫째,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것
 - 둘째,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춘 백두산 혁명장군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시위한 것”

3. 군사

- ‘광명성-3호 2호기’ 시험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체제의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하게 되었음.
 -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 제고’에 대한 자신감 확보
- 열병식을 통해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춘 북한 인민군이 위용을 과시하는데 성공함.
- ‘광명성-3호 2호기’ 시험발사 성공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현실화하는 분위기를 제고함.
 - 군사적 강국에 더하여 과학기술 강국 이미지 제고→경제강국 건설 가능성에 대한 신념 확산

4. 사회·문화

- 평양시 개건사업과 전국적 문화시설 확충을 사회·문화 부문의 주요

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각시킴.

- 평양시 충전거리, 룡라인민유원지와 인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건설 성과 언급

○ 사회주의 교육제도 강화와 체육분야의 성과를 언급함.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 시행 언급
- 체육분야에서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

5. 대남

○ 2012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주적 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언급에 그침.

- 이것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북남 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진행” 등과 같이 남북관계를 평가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

○ 김정은 신년사가 지난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으로 일관하던 2012년 신년공동사설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임.

- 첫째,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 형태라는 점에서 신문 사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필요성이 있었던 점
- 둘째,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고 비난
 - 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와 관련한 조의표명 방해에 대해 “남조선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난
- 대남 분야 핵심 메시지는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남간 대결상태 해소”와 “북남관계를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을 호소
- 이번 신년사의 대남 및 대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 즉 일종의 눈치를 살피는 방식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임.
- 핵문제 또는 핵 참화 등과 같이 자극적 언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극적 공격용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음
- 북한의 대남관계에 대한 입장은 12월 1일 <조평통 서기국, 박근혜 앞으로 공개질문장 발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6·15, 10·4 선언 준수

-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적대시하지 말 것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포기하라는 의미)
- ‘선택포기’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가 우선
- 억지력 강화와 동맹 강화 포기
- 인권법 제정 등 모략 행동 중지

6. 대외

-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 침략책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으며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 2012년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답변 및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등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과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대아시아 지배전략으로 비난
 - 북한은 새 국방전략에 대한 반발과 남북삼각관계의 강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
- 또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함.
 - 김정일의 방중과 방러를 통해 복원되던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관계(북방삼각관계)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진행된 북한의 모험주의적 대외군사행동으로 다시 마찰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Ⅲ. 2013년도 과업

1. 경제

-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부문의 과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어 경제문제의 해결을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역설
 - 이와 함께 경제강국 건설이 김정일 유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사업 추진에서 김정일의 유훈사업이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

- 올해 경제사업의 핵심 추진목표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음.
 - 첫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
 - 둘째,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는데, 이는 예년에 경공업 및 농업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것에 비해 달라진 점임.
 -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자립적민족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한다고 강조
 -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통해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역설

-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났지만,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강조함.
 -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생산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의 향상을 통해 곡물생산 목표 달성을 도모
 - 경공업부문에서는 해당 공장들에 대하여 ‘원료, 자재 보장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질 좋은 소비품들을 증산하도록 촉구
 - 이와 함께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의 생산력 제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

- 인민경제계획을 엄수하도록 촉구하고, 경제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는 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인 확산을 시사

- 과학기술부문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혁명’과 ‘첨단돌파’를 통해서 경제강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투자, 과학기술과 생산의 연계,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

2. 정치

- 2013년의 중심 가치를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설정함.
- 중심 가치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두 가지를 제시함.
 -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
 -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
- 2013년을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해로 설정하고 세 가지 방도를 제시함.
 - 당을 중심으로 군중을 단결시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 정치사상 진지를 다지고,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
 - 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 군기’를 확립하고,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

- 국방공업부문은 첨단무장 장비를 증산
- 당조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시함.
 - 구체적 방도로서 당사업에서 ‘1970년대처럼 화선식’ 방식의 구현 및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

3. 군사

- ‘정치군사적 위력’ 강화를 앞세움으로써 북한군대의 충성심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충성군대 육성 노력 도모
- 2012년과 마찬가지로 군사력의 강화발전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대전환’을 주문한 것은 군사부문의 끊임없는 혁신 필요성을 반영함.
-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 제작 강조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함.

4. 사회·문화

- 작년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과제로 제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 것을 과제로 제시함.

-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인민이 문명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
는 사회주의 문명국임을 강조
-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 등 모든 문화 분야에서 김정일의 사
상, 노선, 방침을 관철할 것을 강조함.
- 평양시 단장사업 및 전국적 문화시설 건설을 과제로 제시함.
 - 평양을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꾸밀 것을
촉구
 - 모든 마을을 사회주의 선경마을로 만들고, 현대적 문화후생시
설, 공원, 유원지를 건설할 것을 과업으로 제시

5. 대남

- 올해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다소 상투적인 전제를 하면서도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2012년에 남한당국을 철저히 외면하던 것과는 다른 면이고 박
근혜 정부와의 당국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
 -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때 이를 가로막고 나
설 여지가 있는 보수세력에 대해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
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북측이 올해 대화국면을 희망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
 - 즉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
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

- 김정은 신년사는 당국대화에 의한 ‘대결상태 해소’를 촉구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제시함.
 - 신년사는 ‘남북공동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당국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남측의 통일운동세력에게도 이 과제를 위한 투쟁을 선동
 - 즉 남과 북, 해외의 온 거레가 “평화변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신년사에서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적 해결,’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책책동의 반대 배경’ 등을 거둬 주장함으로써, 남측의 운동권을 선동하는 동시에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거둬 확인함.
 - 특히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 서서 전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

- 결론적으로 북한은 올해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전면에 내걸고 남북대화를 한 축으로, 통일전선전술을 다른 한 축으로 한 ‘대남 전면적 공세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됨.

6. 대외

- 북한은 “오늘의 국제정세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

거리미사일 발사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감행한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 나아가 향후에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IV. 2013년도 부문별 전망

1. 경제

- 2013년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안정화에 절실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국가경제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4대 선행부문(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해서는 개혁·개방에 대한 불필요한 희망이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예상됨.
 - 이에 따라 경제정책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 강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2. 정치

- 2013년 대내 정책은 대체로 온건할 것으로 평가됨.
 - '사회주의 대고조'와 같이 대대적 경제동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계급적 각성' 또는 '계급 투쟁'과 같이 대내 정치적 긴장 고조를 시사하는 단어들도 등장하지 않는 데 주목
- 대내정치에서는 2012년도에 시행되었던 것과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영생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정당성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당조직 강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청년동맹, 직맹 및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인민내무군과 같이 각종 내부정치 치안조직을 강화해 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
- 2012년에 이미 그 경향이 나타났듯이, 이데올로기 상으로 ‘선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한편, 그 대신에 ‘김정일 애국주의’가 주요 단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신년사는 ‘공화국 창건 65돌’(9.9)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7.27 휴전협정 조인일)을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설정하였음.
 - 각 기념일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생산의 동원과 독려를 행할 가능성
 - 각 기념일의 의미에 부합하는 각종 대내외 행사를 조직할 것으로 예상

3. 군사

- 북한군대를 ‘김정은 결사옹위’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의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군의 정치적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임.
 -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 강화
 - 군의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정치동원 활동 확대

- ‘첨단무장장비’ 과시를 위한 ‘전략군대’ 조직을 강화·발전시키고자 할 것임.
 - 향후 당분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핵실험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
 - 강대국에도 맞설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전략군대’ 육성을 위한 ‘특수조직’을 선보일 가능성

4. 사회·문화

-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부문에서도 주요 조직단위와 대중매체, 예술작품, 군중예술활동 등을 통해 김정일의 유훈, 노선, 방침 관철과 김정은의 계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임.
-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김정은체제의 지지기반 공고화를 도모할 것임.
- 북미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가 개선된다면, 2012년 학제개편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북한당국의 정책이 국제사회와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5. 대남

- 신년사에서 ‘대결상태 해소’와 ‘남북공동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당국 간 대화에 응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에 힘입어 올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매진하는 가운데 대남 대화수요(식량 확보, 경제지원 등)가 증가
- 반면에 통일전선투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당국대화를 주저할 경우에는 남한 사회의 국론분열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함으로써 새 정부가 ‘대북 유화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金正은의 대화·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대남정책 라인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金正은이 2012년 8월 25일 연설에서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언급했고,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 대한 전군 명령 하달과 작전계획 서명을 공개한 전례에 비춰볼 때, 다양한 대남 위협·갈등 증대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우려
 - 또한 남한 당국과 민간을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여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은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한 사회 내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
- 북한은 2013년 초반 유화적이고 온건한 언사와 행동을 구사하면서, 주기적으로 협박성 발언과 시위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협상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 할 것임.
 - 유화 국면이 북한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강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

- 북한은 상반기 동안 한국과 미국의 신정부 정책 방향과 성향을 관찰하고 테스트하는 한편, 양국의 발언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선보이게 될 것임.
- 북한은 6·15, 10·4 선언 준수를 위한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음.
 - 그 목적은 남북대화에서 의제설정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며,
 - 한국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점차 공세 수위를 강화할 가능성 상존
- 유화 및 온건 자세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북한의 대남 및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임.
 - 2012년 7·8월과 10월 외무성비망록과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핵 무기 보유의 장기화’ 및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보유’를 선언
 - 6자회담이 열리면, 대북제재 완화와 경수로 제공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핵 보유 고수 상태에서 ‘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6. 대외

-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자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함.
 - 2012년 대외정책 이념 순서를 ‘자주, 친선, 평화’로 바꿨던 북한은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배

트남 및 라오스 방문외교 등 남방외교(제3세계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북방외교(대중·러외교) 강화에 나섰다, 대서방외교에서는 다소 대결적 구도를 지속

- 2013년 대외정책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으로 되돌린 것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노선에 근본적 변화는 없으나, 전략적 차원에서 다시 대서방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

V. 정책적 함의

- 북한은 당분간 김정은체제 공고화를 위해서 김정은의 군 장악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자발적인 충성 유도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군사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내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신년사에서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를 언급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2013년 상반기 중에 3차 핵실험이나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은 당국대화 재개 및 통일전선 투쟁의 양면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으로 ‘대화 對 대결’ 혹은 ‘전쟁 對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활용하여 남한여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
- 특히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올해 평화협정 체결을 공론화하면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현재의 한반도 안보구도에 질적인 변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지만 ‘침략과 전쟁책동 배격’을 주장하면서 그 근원적 해결책으

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치공세를 강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북한 신년사는 김정은체제의 군부 통제력 강화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 성공 등에 힘입어 정책 전반에서 공세적 기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① 정부 차원의 북한상황 관리 및 당국대화 모색, ② 한미연합 훈련을 구실로 한 북한의 군사도발 억지, ③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 분열 방지, ④ 주변국과의 공조(북한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 강화 등)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북한 관리
-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당국 간 대화재개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활성화, 인도적 지원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의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합의를 존중하되 필요한 부분은 조정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과 신년사에서와 같이 ‘6·15, 10·4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2013년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
 - 6·15,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남북합의에 담긴 정신을 존중

하되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국회 동의를 필요한 부분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간다는 입장

- 2013년 북한은 새로이 출범하는 한·일·중·러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2기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판 회심의 카드인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3차 핵실험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핵탄두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단 발이 아니라 두 발이 순차적으로 터지는 연속 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야기할 안보위협이 높은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 미국의 정책이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기존의 핵능력을 인정해주는 소위 '비확산(Non-proliferation)'으로 기울지 않도록 국제적 차원의 외교도 강화

부록. 2013년 북한 신년사 원문

2013년 북한 신년사 발표(1.1)

조선중앙통신

친애하는 동지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그리운 동포형제 여러분!

우리는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2012년을 보내고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새해 2013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먼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돛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2012년을 맞이하였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결연히 일떠섰으며 당의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었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 온갖 지성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가장 숭엄하게 꾸리고 만수대언덕과 여러 단위에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 나라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중요정치행사들과 지난해에 우리가 맞고 보낸 날과 달들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로 다져진 감동깊은 나날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날 역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찰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위성 제작과 발사에 성공한것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경사이며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특대사변이었습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돛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적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복잡하고 침예한 정세와 련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견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희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훌륭히 개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양양된 애국적열의에 떠받들려 평양시에 창전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져 조국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에 의하여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으며 혁명적 예술인들은 참신하고 진취적인 예술활동을 벌려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을 펼치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자랑스런 성

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에 떨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정확한 령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결한 충정과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나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3년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것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이 있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무궁변영할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나라를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주체적인 실용위성을 제작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입니다.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세포등 판개간전투장으로 용약 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 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까.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망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로 지향시키며 민심을 잘 알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당백》 구호를 제시하신 50돛이 되는 올해에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고히 세우고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며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천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자기 향토를 사수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창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 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입니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 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일군 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 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까.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로서 당정책관철에서 정책적대를 바로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올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혁신적양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 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 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녀이고 숨결이며 부강조 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 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 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동맹원들을 올해의 총돌격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입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입니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입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습니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앞에는 더 밝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끝)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 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통일정세분석 2013-01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3년 1월
발행일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